도난 위험 성보, 3D 프린팅으로 지킨다

성보 대체 복제품, 고교생들이 제작

2012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
15개소 29개 불상 복제 · 봉안

박영빈 객원기자



14세기에 조성된 '보관석가여래상' 진품(좌)과 3D 프린팅으로 조성된 복제품(우).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사진출처=아사히신문

인력부족과 관리부실로 사찰 불상이나 법구 같은 성보 도난 사고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도난 위험이 있는 성보를 대체하기 위해 일본 와카야마(和歌山)현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3D프린터를 이용한 복제품을 만들어 화제다. 지난해 12월 19일 일본 '아사히 신문' 은 학생들의 뜻깊은 활동을 보도했다.

일본 칸사이(關西) 지방 와카야마현은 예로부터 불교문화가 꽃피운 지역으로 불상과 법구, 전적류와 같은 다양한 성보가 산재해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출가자 부족 등의 문제로 무인법당이나 사찰이 증가, 성보들의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고미술계에서 비싸게 거래되는 불상의 경우 도난 피해의 주요대상이다.

와카야마현립 박물관에 따르면 10년 전부터 연간 최소 170여 구 이상의 불상이 도난당했다. 피해를 입은 장소 대부분이 지역 주민이 관리하는 무인 사찰이나 법당이다. 불상 도난은 단순한 문화재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 상징을 빼앗긴 주민의 정신적 피해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박물관 측은 이에 따라 진품은 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예경의 대상으로 복제품을 원래의 자리에 봉안하는 프로젝트를 2012년부터 시작했다. 와카야마 대학과 와카야마 공업고등학교와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로 지금까지 15개소 29구의 불상이 복제돼 봉안됐다.

먼저 와카야마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은 박물관에 보관 중인 불상들을 3D 프린팅 전용 카메라를 이용해 360도로 촬영, 취합된 데이터를 이용해 복제품을 출력한다. 복제된 불상들은 레진소재로 크기나 외형은 물론 세월에 의한 미세한 상처나 변형까지 완벽하게 재현된다. 제작된 복제 불상 표면에 와카야마 대학의 미술전공생들이 원본과 동일하게 채색을 입히면 불상이 완성된다. 박물관과 협력 학교들은 "지금껏 복제품을 조성할 경우 원본과 동일하게 목재나 금속으로 제작했고, 채색도 실제 금박이나 전통 석채물감을 사용해 비용이 많이 들었다. 또 원본과의 이형감이 강하게 드는 문제도 있었다"며 "3D프린팅의 경우 비용 절감과 함께 원형을 충실히 재현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물관 측은 "3D프린팅 복제불상을 받은 원 봉안처와 관계자들이 실물과 완벽히 동일한 점에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제품을 안치하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거부감은 없었는가 대한 질문에 와카야마 박물관 오코우치 토모유키 주임학예원은 "복제품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생각보다 적다"고 밝혔다. 그는 "옛날부터 일본불교에는 비불(祕佛) 등으로 귀중한 불상들은 소중하게 봉안하고, 대중에게는 동일하게 조성한 대체불상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원 소장처에 복제불상을 봉안할 때 단순한 복제품으로 소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무엇보다도, 지역 학생들이 직접 만든 불상을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점으로 꼽혀야한다"며 "젊은 학생들이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최근 마을 법당에 원래의 불상을 대신해 복제된 불상을 봉안한 지역 주민들은 "학생들이 불상을 직접 조성해 봉안한다는 사실이 뜻깊다. 오랫동안 이어온 신심과 전통이 새롭게 젊은 세대에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2300년 전 고대 불교 사원 발굴

파키스탄 最古 유적 추정
'압시달 사원'으로 명명돼

지난해 12월 22일 불교 전문 매체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과 '힌두스탄 타임즈' 등 외신에서 파키스탄의 스와트 유적지구에서 고대 불교사원이 발굴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탈리아와 파키스탄 고고학 공동연구팀이 발굴한 이 유적은 현재 파키스탄에서 최고(最古)로 알려진 탁실라 유적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유적지는 현재 '압시달(absidal) 사원' 으로 명명됐으며 고대에 바지라(Bazira)로 불린 도시 유적에서 발견됐다. 이탈리아 고고학 파키스탄 사절단(MAIP) 국장 루카 올리비에리 교수는 "사원기단부의 연대를 측정해 본 결과 마우리아 시대(BC. 322~185) 시기와 일치했다"며 "이번 발굴이 중요한 이유는 간다라 시대 불교건축양식의 토대가 되는 양식 때문이다. 현재 가장 초기양식이라고 알려진 탁실라 사원유적보다 앞선 유적지"라고 전했다.



파키스탄 최고(最古) 압시달(absidal) 사원 발굴 현장 전경.

고대 문헌에 따르면 해당 유적은 간다라 시대 불교예술과 도상학의 발상지이자 중앙아시아 전역에 불교를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다. 이번 발견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인도 중부까지 통치한 인도-그리스의 통치자 메난드로스 1세(BC.160~135 통치)와 후계자, 불교도들이 기원전 3세기 전부터 이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발굴에 참여한 고고학박사 미셸 마르나디는 "이 지역에서 발굴된 화폐 가운데 메난드로스 1세가 발행한 은화가 다수 발견됐다. 또 그리스 복장을 한 청년과 카로슈티 문자가 새겨진 인장 등 인도와 그리스 문화가 혼합된 유물도 출토됐다"며 "당시 문화교류의 증거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파키스탄 주재 이탈리아 대사 안드레아스 페라레세는 "이탈리아와 파키스탄 고고학자들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에 의해 놀라운 발굴이 이루어져 뜻깊게 생각한다. 또 발견된 유적이 고대 그리스와 인도 간의 문화와 종교에 대한 교류가 있었던 장소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깊다"며 "이탈리아와 파키스탄의 고고학 사이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 인상적이며 과거의 역사를 찾을수록 함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뿌듯함을 드러냈다.

고대 불교유적들이 산재한 스와트 유적 지구는 2008~2010년 도굴꾼에 의해 약탈된 현장으로 현재까지 약 5%만이 발굴된 상태다. 공동연구팀은 본격적인 발굴에 들어갔으며 추후 발굴에서 인도-그리스 시대에 대한 더욱 중요한 발견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한겨울 추위 목어쿠션으로 따뜻하게

日, 목어 본 딴 쿠션 화제



인테리어와 실용성을 겸한 목어쿠션.
사진출처=펠리시모 오테라부 공식 블로그

불교와 사찰의 생활문화에서 모티프를 딴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일본의 회사 '펠리시모 오테라부' 가 불전사물인 목어를 모티프로 한 쿠션을 발매해 화제다. 인테리어와 실용성을 겸한 불교문화상품에 대해 지난해 12월 15일 'PR타임즈' '파우치 뉴스' 등이 보도했다.

2014년부터 다양한 불교문화 상품을 제작해 오고 있는 펠리시모 오테라부는 불교문화 속에서 실생활에 적용하는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다.

회사 측은 "불교신자나 교계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귀엽다' '흥미롭다' 등의 관심을 계기로 불교와 사찰문화와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품 제작을 위해 사찰이나 소비자들의 문의나 아이디어 제보도 받고 있다. 지금까지 펠리시모 오테라부는 쿠션이나 가방을 비롯해 화장품이나 액세서리 등 다양한 제품을 제작하며 교계 안팎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목어쿠션은 일본의 선종사찰에 걸려있는 어판(魚板)에서 영감을 받았다. 한국의 불전사물인 목어에 해당하는 법구인 어판은 한국의 목어와 비슷하게 속을 파낸 나무를 물고기 모양으로 조각해 만들며 입에는 구슬을 물고 있는 형태로 조성된다.

회사 측은 "나라마다 입에 물고 있는 구슬에 대한 의미가 다르지만 일본선종의 한 일파인 황벽종(黃檗宗)에서는 삼독번뇌를 상징하는 번뇌주(煩惱珠)라고 한다. 눈을 뜨고 자는 물고기처럼 삼독심이 오고가는 것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출시된 목어쿠션에는 이 번뇌주도 제대로 재현됐다.

목어쿠션은 인테리어와 실용성을 겸하기 위해 쿠션내부에 온수통이나 핫팩을 넣어 따뜻하게 안고 있을 수 있게 제작됐다. 또 배를 누르면 입에 물려진 번뇌주가 튀어나도록 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게 배려했다. 회사 측은 "따뜻한 목어쿠션과 함께 가족들이 한겨울 추위 속에 단란한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시 이후 네티즌과 구매자들은 재미있는 상품이 나왔다며 호평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가 솟아나는지 신기하다. 항상 가지고 싶은 상품들이 나온다"고 평가했다. 한 스님은 "번뇌주가 튀어 나오도록 만든 구조가 재미있다. 꼭 번뇌를 멀리 던져버리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시베리아에 숨겨진 성보 '전단 석가모니불'

2m 목조 입상… 1901년 경 이운
종교 박해로 사찰 파괴에도 보존



에기뚜이 사원에 봉안된 '전단 석가모니불' 불상.
사진출처=부디스트 글로벌 도어

최근 유럽에 불교가 성행하면서 러시아 시베리아권의 전통 불교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베리아 전통 불교의 성보인 '전단 석가모니불' 불상이 주목받고 있어 화제다. 12월 20일 해외불교 전문 온라인 매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은 이 불상에 대해 특별보도했다.

'전단 석가모니불' 은 러시아 연방 부랴티아 공화국 수도 울란우데 근교에 봉안돼 있는 2m 높이 목조 불상입상이다. 전설에 따르면 이 불상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가 설법하는 동안, 지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그리워해 전단향 나무로 조성한 불상이다.

이후 인도에서 카슈미르로, 다시 중국으로 이운됐으며 최종적으론 베이징의 홍인사(弘仁寺)에 봉안돼 중국과 티베트, 몽골 등지에 다양한 영험담이 전하고 있다.

1901년 의화단 난으로 홍인사가 전화로 소실되고, 불상은 러시아 군의 전리품으로 넘어갔다. 현재 불상을 봉안하고 있는 에기투이 사원 측은 "당시 강주였던 도르조 에르딘비 스님이 중국 순례 중에 소식을 듣곤 러시아군과 접촉해 사찰로 이운해 왔다"고 전했다. 이후 불상은 시베리아 불자들을 중심으로 모셔졌다. 소련의 종교박해 시대에도 사찰은 파괴됐지만 이 불상만큼은 역사유물로 취급받아 파손되지 않고 박물관에 보관됐다.

1991년 사찰이 다시 재건되면서 러시아 정부는 시베리아 불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원래의 자리에 불상을 안치했다. 현재도 '전단 석가모니불' 은 시베리아 불자들의 신심의 구심점으로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2022 謹賀新年 임인년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선찰
만 덕 사
(부산지방문화재3호 만덕사지)
주지 금산 박혜명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북구 구만덕로 63-13
전화 051)334-3009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탕)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산삼 캐는 심마니가 산에 갈 때는 꼭 마가목 지팡이를 짚고 가야 기운이 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2개월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 KBS1,2 TV 건강하게삽시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내고향 스페셜, MBC TV 고향이 좋다. 방영
■ 2019.10.31.(목) KBS1 저녁 7시 4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마가목」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금지)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전국 사찰 성수통 특별설치
우주 진동파 에너지 목화석에 주입… 연구적 사용
우주의 에너지는 소리로부터 시작되어 진동과 울림에 따라 생성됩니다. 이미 세계의 과학자들이 양자물리학 이론을 밝힌 바 있고, 이는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낸 성수의 이론도 양자물리학 에너지를 적용시켜 만든 물질입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인간에게 더욱 접근하여 사용할 수 없을까 하는 연구 끝에 불가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여 본 성수가 각 사찰에 좋은 에너지를 주는 데 도움이 될까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진동파 에너지(성수, 악세사리) 사용후 얼굴, 눈주변, 목주름 변화

한달 후 변화 1주 후 변화 2주 후 변화
▣ 사용방법
- 사찰 규모에 따라 진동파 에너지 자료석(성수) 용기의 크기는 다릅니다.
- 진동파 에너지로 우러난 성수를 마시거나 얼굴에 뿌리면 주름이 펴지거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또한 이 물을 마시면 속이 편하고 몸이 가벼워지며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성수를 얻기 위하여 많은 대중에게 관심을 받을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주문신청 : 스님이 직접 체험 후 결정

진동파 에너지 자료석
● 연락처 : 010-3367-9684 ● 주소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영경로 595-131 태광사